

의학도가 꾸민 의료현실 풍자극

연극평 — 한의대 '고도극회'의 '상상병 환자'를 보고

대학문화의 형성은 어느 한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대학구성원과 문화·예술인들이 꾸준히 창작·공연활동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객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의대 연극동아리 '고도극회'가 지난 10월 31일부터 2일까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상연한 '상상병 환자'도 건전한 대학문화 창조로 가는 길목의 한 모퉁이를 장식할 것이다.

'고도극회'의 34번째 정기공연물인 '상상병 환자'(몰리에르 작)는 스스로 환자라고 생각하며 의학을 행한다는 한 돈 많은 노인과의 주변인물들을 그리고 있다.

'서민귀족' '수전노' '위선자' 등으로 유명한 몰리에르는 비극이 성행하던 이전 연극사에 희극의 전기를 이룬 작가로서 산업혁명 이후 과학문명의 발달이 낳은 부조리, 부조리자들의 돈과 권력을 내세운 사회, 이런 문명의 발달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풍자하였다.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상상병 환자'도 소자본가들이 귀족으로의 지위위상을 꾀하는 당대의 사회적 배경을 짚어 주고 있으며, 의학발달의 가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당시의 초보적 의학지식을 맹신하는 편파부조리주의의 희화적 모습 등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고도극회'의 이번 공연은 의료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 고전물을 한의학도들이 열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출을 맡았던 표영석(한의·2)은

이런 작품에 대해 "연극의 내용이 전적으로 현실상황과 맞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만연해 있는 의학을 맹신하는 풍토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원작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원래 전체 3막으로 구성된 장편인 '상상병 환자'를 이번 공연에서는 시간상의 문제로 제1·2

계 된 노인이다. 어리석게도 정확한 병명도 모르면서 자신이 중환자라고 믿는 아르강에게 당돌하지만 충직하고 한눈에 진정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큰딸 안젤리크, 해박한 인텔리로서 의학에의 맹신을 비판하는 동생 베랄드는 아르강 스스로 병의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간언한다. 그러나 이

에 녹아들어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다. 이 연극은 '의술의 발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하는 논제와 더불어 지나치게 일신(전강으로 상징되는)에 집착하는 소부조리에 대한 조소, 그리고 고전에서 항상 테마로 등장하는 사랑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 큰딸 안젤리크를 그녀의

이 작품은 의학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흥미로운 소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열악한 여건 불구 차분한 연기 돋보여 원작에 몰입, 작품해석의 새지평 열지 못해

막각각을 생략하는 등 개작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장면을 생략하였다.

이 연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르강은 어느정도 재물이 모이고 사회적으로 자리가 잡히자 좀 더 나은 지위를 바라게 되고, 자신의 건강에 지나친 집착을 하

미 판단력을 상실한 아르강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새아내의 계략과 아르강과 같은 환자대중을 무시하며 의술을 난폭하게 행사하는 주치의 푸르공의 중병이라는 협박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상황설정과 인물성격의 묘사는 배우들의 완만한 연기속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의사의 아들이자 예비사인 도마디와프와에게 시집보내려는 아르강의 억지에 하나 프와네프와 동생 베랄드가 묘책을 써서 계모와 의사를 몰아내고 안젤리크와 그의 애인 프와네프와의 사랑을 이루어지게 한다. 해피엔딩의 이 연극은 아르강으로 하여금 의사의 옷을 갖추어 스스로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기를 권유한다. 그러나 여전히 의학에 대한 논쟁이 풀리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막을 내린다.

의학에 관한 인간의 의존심리와 그에 대한 비판, 의사들의 통치적인 비도덕적 모습들이 현실에도 이어지는 것을 뜻할 것이다.

한편 이 연극의 무대장치가 음향, 조명은 학생들의 아마추어적 입장을 이해한다고 해도 공간을 비롯한 기타요소들의 활용과 그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의 구조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때, 무대가 너무 좁아 약간의 장치만 해도 연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불과 2미터도 안 되는 곳에 다른 어떤 장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부터가 의심스러워진다.

현재 각 단체·동아리별로 꾸준한 행해지고 있는 문화·예술공연들을 보강해 주고 그 문화역량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학내의 문화시설확보가 학교의 지위 아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금주 기자)

개회된다. (문의: 313-7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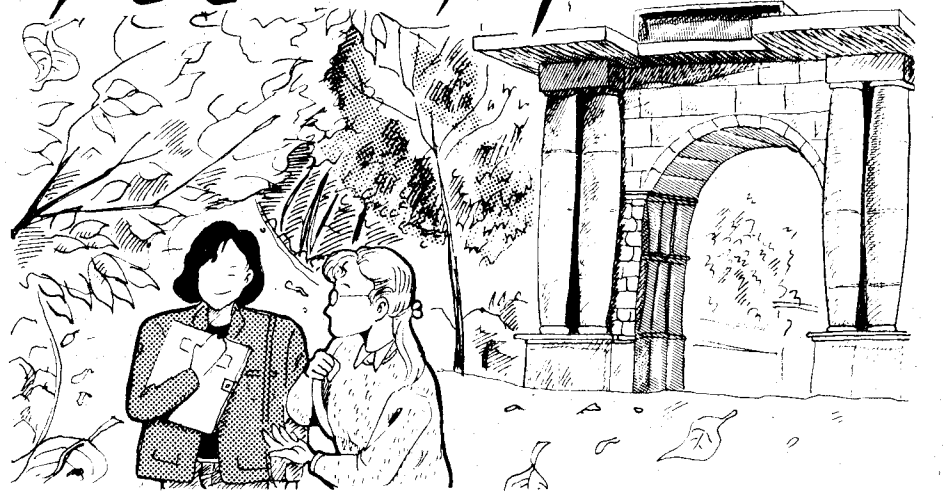
'그림자놀이' 영화 상영

교내 영화연구회 '그림자놀이'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제16회 정기영화제 '여자는 왜...?'를 역경비디오로 상영한다.

여성영화의 역사와 사회구조의 모순을 다룬 이번 영화제는 '영자의 전성시대'와 7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11월, 70년대 산업화된 사회구조 속의 여성을 그린 '영자의 전성시대'를 12시에 상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테레사의 초상', '노마레' 등이 상영되며, 12월에는 사무직여성노동자를 다룬 '작은 꽃'이 올 예정이다. '굴레를 벗고서', '칼라퍼' 등이 상영되고, 13월에는 '테레사의 초상'의 4편이 상영된다.

독자수필

가을을 느끼며



조물주께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 강산에 오색 찬란한 비단옷을 입혀주셨다. 특히 경희 캠퍼스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옷을 주신 것 같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숙집에서 아침에 길을 나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살포시 단장한 단풍이다. 멋진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마음껏 자태를 뽐내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는 감탄사가 절로 흘러 나온다.

어째서 가을이 외롭고 쓸쓸한 계절로 낙인 찍혀졌을까? 낙엽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부각되어서 그런 것일까? 낙엽이 있기 전에 정말 아름다운 단풍이 있었음을 쉽게 간파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가을은 오색단풍들과 어울려서 어떤 계절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봄·여름동안 푸르게만 펼쳐져 있던 우리의 자연이 가을에는 화려한 색의 무도회를 펼친다. 조물주의 위대한 수채화요, 아름다운 색의 선율이다.

나는 그 어떤 계절보다도 가을을 사랑한다. 여름까지 매달리었던 내 가슴을 온통 뒤흔들어 놓는 가을을 사랑한다. 어제는 어느 가을의 노래 가사로 인해 펜시러의 의미가 더해져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 때문이었을까? 무언가 독특한 일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은. 친구와 수업을 마치고 협력교과를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그냥 이대로 보내기는 아쉽다는 말만 되돌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우리들의 손에 음악회 팸플릿이 쥐어졌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런 행사가 있었으니 하고 쉽게 지나쳤을 텐데 그것은 웬일인지 마음이 무척이나 끌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의사를 물었더니 좋다고 하였다. 우리들은 과감하게 발길을 돌려 공연장으로 향하였다. 처음에는 그런 장소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어색해서 괜히 속스럽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무대에 조명이 켜지는 순간 모든 분위기와 느낌은 역전되었다.

난 우리 학교에 그렇게 아름다운 무대와 자연이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무대의 뒷 부분에 세상의 때를 모르고 순결하게 달려 있는 단풍잎들의 아름다운 자태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런 느낌 때문이었을까? 공연도 정말 멋있었다. 이 아름다운 자유로운 대학 시절이 아니면 어디서 그런 멋진 감흥을 느껴 볼 수 있을까? 아름다운 멜로디와 개성 있는 조율이 흔들리는 조명의 불빛이 단풍잎과 어울려서 그 무대는 실로 평화 그 자체였다.

“옷깃에 스며드는 가을 바람을 느끼며 내 온 몸을 단풍으로 물들이고 싶다”

나는 아름다운 우리 학교를 사랑한다. 험난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우리 학교의 나무들을 사랑한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초록을 오색의 단풍으로 바꿀 줄 아는 나무들을 사랑한다.

나무는 때(時)를 아는 것이다. 조물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의무를 한 해도 어김없이 수만년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 지는 우리 인간들은 지금 이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이기심만을 내 세우며 신이 주신 사랑을 잊고 산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단풍 한 잎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지어 내셨다. 그렇다. 자연은 바로 수많은 인간들의 대모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망각한 채 자연을 사정없이 망가뜨리고 있다. 또다시 인간들이 겹겹이 겹겹이 내 문명이 나무들을 죽이고 있다. 사람도 건달기 힘든 가스가 우리 학교의 아름다움을, 자연의 생명력을 파괴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삶이 이렇 수만은 없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자연이 이렇게 수모를 당할 수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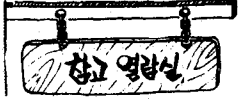
이 가을에 위대한 자연의 섭리속에 우리의 고개를 숙여보자. 그리고는 대모의 따뜻한 품속에서 심장의 고동소리를 가슴으로 느껴보자.

자연은 살아있다. 우리 캠퍼스 곳곳에서 자연이, 가을이 살아 숨쉬고 있다. 외롭고 쓸쓸한 계절이라고 낙인을 찍어 버리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가을을 외면해 버리지 말자. 교정에서 황금고 있는 낙엽 하나도 소홀히 짓밟지 말자. 대모의 품속에서 그들과 우리는 하나인 것이다.

어느새 11월이 우리에게 달려왔다. 이제 완전한 가을임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게 된다.

옷깃에 스며드는 가을 바람을 느끼며 내 온 몸을 단풍으로 물들이고 싶다. 내 마음속의 더러움들이 가을 바람에 의해 씻겨진 자리에 가득 채워진 사랑이 이 세상에 단풍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매서운 북풍이 교정의 단풍을 다 몰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단풍속에 내 몸을 던져버리고 싶다.

박 선 영
(국문·2)



WHNS

전시접수국 지원협정(Warime Host Nation Support Agreement)은 그 뿌리를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0년 7월 15일 대전협정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 지원권이 미국에 이양되었고, 1953년 10월 1일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의 문서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협정이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의 모태가 되고 있다.

이 협정은 전시에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 증원군의 신속한 배치와 운용에 필요한 항공, 도로, 상수도 등의 각종 시설과, 유류, 탄약 등의 수송, 노무지원 등에 대한 한국의 지원내용과 규모, 비용분담의 원칙, 이를 위한 평상시의 준비와 점검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즉, 미군은 전시에 각종 물자와 군수지원부대를 동원하지 않고 전투부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증원군을 파견하고, 한국은 미군의 전투에 필요한 각종 군수 지원을 해줌으로써 미군 증원병력을 조기 전력화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전 광 호 < 대학원 석사2기·정치학 >

문화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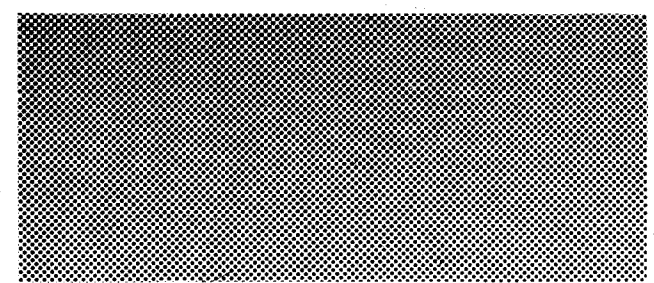
'우리마당' 풍물강좌

풍물과 '우리마당'은 '전통문화강좌'를 위한 문화학교'를 오늘부터 신촌에 위치한 '우리마당'에서 실시한다.

일반인들에게 전통문화를 보급하며 왜곡된 사회제현실을 생활 속에서 극복하고자 89년부터 마련된 문화학교는 판소리, 풍물, 단소, 대금등을 강좌한다.

모든 강좌는 4주간 실시하며 판소리는 4일부터, 단소는 7일부터 매주 월·목요일 저녁 7시30분과 7시에 각각 열리고, 풍물은 5일부터, 대금은 8일부터 매주 화·금요일 저녁 7시30분과 6시30분에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대기련



WHNS



이거 아십니까?

제2의 을사조약, 현대판 노비문서 등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없으므로 평시에도 전시준비를 위한 모든 태세가 갖추어져야 하고 그 비용까지 우리 나라가 부담해야 하는 협정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좀더 합법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는 미국의 군화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상황입니다.

온 국토 망가뜨리는 WHNS 결사반대
주한미군 철수시켜 자주정부 앞당기자.

학생의 날 62주년 반외세자주화투쟁의 봉화를 올립니다